

專門大學院의 課題와 展望

金 鍾 喆
(서울대 教育學科 教授)

I. 現況과 問題點

우리 나라의 大學院教育制度에 있어서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이 二元化되어 있으며, 後者는 1959년 서울대학교에 行政大學院과 保健大學院이 설치된 것을 嚆矢로 하여 4半世紀의 짧은 歷史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급속한 成長 추세를 나타냈음은 잘 알려져 있다. 1983년 현재 102개의 專門大學院에 24,222명의 學生이 재적하였으며(定員 25,530명) 170개의 大學院 중 機關數에 있어서 60%, 大學院 總在籍生 60,282명(定員은 64,572명) 중 在籍生數에 있어서 40.2%의 比率를 占하기에 이르렀다. 教育學系列, 經營學系列, 行政學系列 등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産業工學系列, 環境工學系列, 神學系列 등 여타의 여러 계열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서울대학교의 行政大學院을 제외하고는 博士課程의 설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碩士課程, 研究課程 등이 광범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一般大學院에 비하면 그 課程의 범위가 상당히 限定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夜間制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季節制로 운영되는 事例도 있다.

專門大學院의 目的이나 機能面에서 一般大學院과 等差를 두는 法的 基準이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전문대학원은 産業化의 촉진, 高學歷社會의 도래, 繼續教育機能의 강조 등 새로운 社會變化의 추세에 부응하여 주로 敎員, 政府機關과 産業體의 中上層管理者 등을 비롯하여 各界人士들의 專門職으로서의 能力과 資質向上을 기하는 데 實質的인 目標을 두고 있으며 또 사실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이 다 같이 研究, 敎育, 奉仕 등 機能의 深化를 통하여 高級 專門人力의 養成에 力點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前者가 學問의 研究에 더 役점을 두고 後者가 現職 專門人力의 繼續教育機能에 役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敎育課程에 관한 法的 基準은, “季節制·夜間制 大學院에 있어서는 每學期 最大 取得學點을 6學點으로” 제한한다는 것 외에 따로 규정이 없으며, 대부분의 전문대학원이 이에 해당됨은 물론이다. 大學院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外國語試驗에 합격함으로써 論文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夜間制 專門大學院은 5學期制, 季節制 專門大學院은 6學期制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履修學點은 24~30학점 사이에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敎育課程의 全體 構造는 대체로 共通科目, 專攻科目(必須와 選擇), 基礎科目의 3개 영역이 걸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共通科目을 따로 두지 않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專攻科目에 있어서도 일부 전문대학원 중 選擇科目을 거의 개설하지 않고 있는事例도 없지는 않다. 基礎科目은 大學 學部에서와 相異한 專攻領域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로 調査된 39개 專門大學院의 경우 12~15 학점의 범위에서 專攻領域의 學部課程을 24학점 외에 따로 이수하게 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專門大學院의 教育課程 운영에 있어 特記할 만한 사실은 學科別로 受講生數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 50~6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그것은 주로 財政의 效率化를 위하여 無學期制로 合班하여 과정을 수강케 하는 慣習이 널리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理由로 選擇科目을 制限함으로써 많은 學生들이 거의 동일과목을 수강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專門大學院에서는 보통 1개의 外國語試驗과 綜合試驗의 合格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60점 또는 70점 이상을 合格點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形式上的 要件에 불과하다.

한국에 있어서 專門大學院이 창설되고 또 급속히 확충·성장된 것은 産業化의 進展과 軌를 같이하였다. 政策的으로 高級人力의 繼續教育機會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크게 反映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체로 社會科學系列의 擴充이 두드러졌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質的統制面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고 전문대학원의 聲價面에서도 문제점이 없지 않았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의 專門大學院은 大學 一般이나 大學院教育 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多樣性을 특징으로 하며 千差萬別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問題點도 大學院에 따라서 또는 特定系列이나 學科에 따라서 반드시 동일한 視點에서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된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거론키로 하겠다.

가) 專門大學院의 理念과 制度가 一般大學院과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관하여 명확한 理論이나 法的 基準이 서 있지 못하다. 전문대학원이

일반대학원에 비하여 늦게 發足되었고 따라서 그 歷史의 背景과 傳統을 달리하여 현실적으로 그 學生構成이나 聲價面에서는 물론 운영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二元化制度는 어떠한 本質的인 理論的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法制面에서의 基準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專門大學院의 理念과 制度가 뚜렷이 定立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反證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 一般大學院도 五十步 百步의 차이에 불과하여 한국의 大學院教育 전반이 그러하다 하겠지만 특히 專門大學院의 경우 質的統制가 미흡한 편이다. 大學院教育의 本質로 보아서 어떠한 質的統制이던 그것은 外部的인 것이 되기보다도 內部的·自律的인 것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도 그와 같은 內的·自律的의 規程에 의한 質的統制는 대부분의 專門大學院에 있어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要因의 複合作用에 의한 것일 것이다. 몇 가지 例示한다면 ① 불과 15년간에 100여 개로 늘어난 裏面에는 量的成長에 置重하여 質을 생각할 여유가 적었다는 점, ② 우리나라 大學院教育 전반의 운영이 아직도 學部教育의 附隨의 存在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③ 專門大學院의 教育與件이 지극히 미비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예컨대 1982년도 出講教授 5,700명 중 專任教授는 6%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 ④ 대부분의 경우 財政을 學生들의 登錄金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⑤ 學事運營이나 評價制度가 미흡하다는 사실, 예컨대 入學選拔에 있어서나 綜合試驗에 있어서 適當主義가 만연되어 있고 學位論文의 지도에 있어서도 專任教授 등의 不足으로 不實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⑥ 專門大學院 卒業者에 대한 應分의 優待策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다) 專門大學院 教育課程의 구성에 있어서도 물론 그 運營에 있어서 內質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定評이다. 물론 이 역시 전문대학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學生들의 人的 構成面에서 볼 때 대부분이

現職에서 오랜 經驗을 쌓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느냐, 敎育의 方法面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 되느냐, 敎材나 學習資料가 적절하느냐, 敎授·學習의 輿件이 잘 정비되어 있느냐 등의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경우 理想과 現實, 當爲와 實在 사이의 乖離가 심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라) 專門大學院 102개 중에서 약 74%에 해당되는 74개가 私立이고 地域別로도 약 53%에 해당되는 54개가 서울에 集中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하나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高等敎育機關이 점차 地域間 均衡을 찾는 方向으로, 敎育人口의 地方分散 方向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과 대조해 보더라도 이는 무엇인가 高等敎育의 전반적 政策方向이나 發展趨勢와도 어긋나는 경향임을 느끼게 한다.

마) 專門大學院은 누구나 들어가기 쉽고 또 일단 入學만 되면 거의 다 學位를 받고 나올 수 있다는 安逸한 생각이 만연되어 있음은 대단히 不健全한 社會風土요, 敎育風土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위에서 말한 質的 統制와 깊은 關聯을 가졌으며 어느 것이 先이고 어느 것이 後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하겠다. 1982년도의 경우 專門大學院의 合格率은 평균 66%이고 綜合試驗의 合格率은 평균 79%(서울 76.8%, 地方 83.2%), 碩士學位論文의 審査結果 合格率이 94%(國公立 87%, 私立 96%)였다는 사실 등이 이를 구체적으로 立證한다 할 것이다. 일부 私立 專門大學院에서 學生들을 많이 誘致하는 데 지나치게 敏感한 現實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바) 先進 外國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부 大學院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大學院間의 協力體制가 專門大學院의 경우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가별게 간과할 수 없다. 專門大學院 相互間의 協力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專門大學院과 一般大學院, 專門大學院과 學部課程 사이에 있어서도 同一 大學內에서의 시설 활용, 敎授의 共同活用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研究開發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I. 發展을 위한 主要 課題

오늘날 한국의 專門大學院이 적면하고 있는 問題點에 대한 위에서의 分析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라면 앞으로 한국 專門大學院의 發展을 위한 課題가 무엇이냐의 문제는 스스로 명백하다 할 것이다. 現在의 問題를 해결하고 앞으로 제기될 새로운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약간의 중복을 무릅쓰고 앞으로의 課題와 그 解決의 方向을 간단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解決의 方向에 重點을 두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앞으로 보다 深層의 分析과 研究開發을 기다려서 신중히, 그러나 착실히 進進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모든 문제에 대한 明快한 方向 제시나 解答를 제공하기를 기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시키면서 앞으로의 主要 課題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그 과제 수행을 위한 主要 政策方向이나 政策面의 下位課題를 간결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理念과 制度의 定立

技術人力, 管理人力, 기타 주요 專門職의 高級人力을 양성하고 그 能力과 資質向上을 위한 繼續敎育을 확대 강화하며 특히 平生敎育의 理念이나 知識情報社會의 必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專門大學院敎育을 改善·強化할 필요는 절실하다. 그러나 質的 向上을 수반하지 않는 量的 成長은 大學院敎育에 있어서 특히 경계를 요한다. 지난 25년간의 전문대학원 成長 過程을 돌이켜 보면 政策要因의 作用이 컸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는 너무 急進의 成長보다도 質的 向上과 더불어 量的 擴充을 도모하여야 하며 地域間 均衡發展에도 力點을 두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制度面에서 一般大學院과 特殊大學院의 二元化를 止揚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나름대로의 論旨이 있고 또 극히 한정된 일부 大學院에서는 可能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先進國家의 경우

特殊大學院(professional schools)이 一般大學院과 구분될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당분간 兩者의 一元化는 一般大學院의 質的 低下를 감수하거나 特殊大學院의 門戶開放을 크게 제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적어도 상당기간은 二元化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것이다. 條件이 구미된 大學부터 漸進的으로 실행할 수도 있으나 行政의 劃一性과 法律的 接近으로 말미암아 그다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二元化制度는 條件이 성숙될 때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라고 생각된다.

2. 教育課程의 改善·內質化

大學院教育 強化의 核心課題로서 大學院中心 大學을 육성하고 그 일환으로서 示範的인 專門大學院을 系列別로 육성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전문대학원의 教育課程開發, 教材開發, 教育方法의 개선에 力點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入試選拔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方法을 創意的으로 研究·開發할 필요가 절실하다. 語學試驗은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專門分野의 經驗(예컨대, 教育大學院 教育行政 專攻者의 경우 教育行政經歷 같은 것)도 중요한 要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綜合試驗이나 論文指導에 있어서도 보다 內實을 기할 수 있는 方案이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전문대학원에 관한 與件의 改善는 물론 그에 대한 社會心理的 風土의 改善과 더불어 漸進的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經營管理의 合理化

오늘날 企業體나 政府機關의 經營管理面에서는 革新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教育運營에 있어서의 經營·管理의 革新은 비교적 완만하고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大學院 수준의 經營·管理는 더욱 그러한 느낌이 강하다. 이는 教育에 있어서는 先進國과의 경쟁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는 데다가 教育界 人士들 자신의 保

守的 경향에 크게 起因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財政面의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現代化된 器械가 광범히 보급·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管理情報體制와 體制接近的 技法이 經營管理의 合理化를 촉진시키고 있는 先進國家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우리나라 教育界는 지금도 구태의연한 方式에 의존하고 있는 면이 허다하다. 물론 느슨한 組織體 속에서 느긋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教育界의 教育界다운 특색일 수 있다. 그러나 現代 科學技術時代의 利器를 활용하여 經營·管理의 效率化와 合理化를 기하는 것은 教育界에 있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거기에서 節用된 精力과 時間을 學生에 대한 專門의 서어비스 活動에 바칠 수 있기 때문이다.

4. 協力體制의 強化

先進國家의 경우 財政的으로 우리보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改善과 財政的 效率性 제고라는 二大命題下에 大學間 協力體制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예컨대, 美國의 경우 大學間 協力體制의 강화는 괄목할 만한 추세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1960년대 후반기부터 커다란 時代的 潮流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한국과 같이 프로그램이나 財政力이 부족한 나라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專門大學院을 포함하여 大學間 協力體制의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인식의 不足, 教授世界의 保守主義와 몬로이즘 등이 그 주요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專門大學院間에 있어서도 學點의 相互交流, 共同講義의 개설, 圖書館과 實驗實習施設의 共同活用 등 協力體制 구축의 길은 많다. 美國의 경우 異質的인 大學間에 協同의 필요성이 더 많고 또 더 광범히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그것은 實現可能性이 희박한 만큼 비교적 先導的·同質的인 機關 사이에서 協力關係를 시도하고 점차 이를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된다.

5. 質的 統制의 強化

앞에서 한국의 專門大學院이 質的 統制에 있어서 미흡함을 지적하고 그 主要 要因을 열거하였다. 이를 뒤집어 살펴본다면 우리 나라에서 質的 統制의 강화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사해 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要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하루 이틀에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나千里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인 만큼 서서히, 착실히 여러 方面에서의 점진적 前進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특히 語學試驗, 綜合考查, 論文指導 등에 있어서는 새로운 方案을 研究, 開發하여 보다 효과적인 質的 統制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격으로 앞으로 각 關聯人士들의 보다 정성스러운 奮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 發展의 主要 課題를 대충 제시·설명하였으나 모든 과제를 다 包括적으로 다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하나 하나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다 細分된 여러 分野에 걸쳐 상세한 논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는 綜合的인 觀點에서 概括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다만 앞에서 여러분들이 논의한 것과는 약간 統計적으로 다르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論及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필자 나름대로의 獨自의 責任에서 그렇게 表現한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전체적으로는 다른 분들의 글을 參考하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전체의 脈絡에 있어서 크게 背馳된 점은 거의 없다고 본다.

Ⅳ. 展 望

專門大學院이 制度化되고 發足된 지 25년의 歷史가 흘렀다. 그 수가 102개에 달하고 在籍生이 24,000여 명에 달하였다는 사실이 말해 주듯이 그것은 급격히 成長하였고 이제는 韓國 大學院教育의 一翼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로 성숙·定着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 現況을 分析하고 問題點을 診斷해

보건대 專門大學院教育은 外國의 저명한 professional schools와는 거리가 먼 草創期의 成長段階에 놓여 있으며 內質化를 기하는 문제는 주로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 高等教育 전반의 문제, 특히 大學院教育의 문제와도 共通된 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다른 어느 부분 못지 않게 허다한 未決의 課題를 안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專門大學院이 한국 大學院教育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는 展望은 거의 明確한 것 같다. 一般大學院과 一元化될 수 있느냐는 앞으로 상당기간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夜間制, 季節制 등 定時制教育이 그 主流를 형성하고 있으며 現場에서 일하고 있는 專門職要員들의 能力과 資質向上을 실질적인 機能으로 하고 있으며 그 根本性格에 變化를 가져오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歷史的 背景과 앞으로의 社會需要에 관한 展望으로 보아 그러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專門大學院이 大學院教育의 이름에 부합되는 教育의 與件을 갖추고 過程을 거침으로써 高級專門人力을 養成 供給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高學歷社會에 있어서 資格賦與의 機能만을 形式的으로 수행하는 制度的 裝置로 轉落되어서는 그 存在理由를 喪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전문대학원이 그러한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상당수가 그렇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政策的 決斷과 더불어 專門大學院 經營 關聯者들의 共同努力으로 위에서 제시한 諸課題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그 內質化와 質的 向上을 기하여야 할 것이 요청된다. 政策代案의 研究開發도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광범한 支援策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만 필자로서는 이제까지의 추세로 보아서 그 앞날을 樂觀하는 立場을 저버리지는 못하겠음을 첨언하고자 한다.

*